

# 새해 우유소비 홍보도 여성분과위가...

지난 12월 9일 예상치도 않았던 한파에 길이 뽕뽕 얼어붙은 날에 여성분과위 2002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여 먼길 오실 회원님들 고생 하실까 밤새 고심했는데 멀리 제주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회원님들께서 속속 행사장인 안성 축산연수원으로 오시는 발걸음과 열정이 넘치는 행사진행을 보고 한국낙농의 희망은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성분과위가 2001년 첫 탄생하고 1년 동안은 제 생애 제일로 바쁜 해였습니다. 늘어가는 분유체화에 자식같은 소를 강제 도태를 시키고, 쿼터제를 먼저 실시하는 개인 유업체의 강압에 납유계약시 받기로한 유대를 일방적인 통보로 깎았고, 설상가상 구제역이 경기도 근동에서 발병 가습살이를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성분과는 제주도를 위시해서 공주, 화성, 여주, 보령분회가 결성되고 마치 결사대처럼 지역에서 우유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분과위 결성은 아직 안 했지만 충남 성환 천안지역과 이천 설성, 상주, 진주에서 새해엔 결성식을 치루기 위해 준비작업이 마



조 옥 향 / 여성분과위원장

무리단계입니다.

이외에도 2003년도에는 많은 지역에서 여성분과위가 결성되어 우유홍보대사로 전문여성 낙농경영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2002년을 회고해보니 여성분과위에서는 우유홍보에 한 획을 그은 일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유는 음료가 아닌 음식으로 재창출 한 것입니다. 관행처럼 우유소비가 둔화되면 공짜로 나눠주던 것을 과감하게 우유음식을 개발, 소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사서 드시는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 했습니다.

우유부침개, 우유라면, 우유수제비, 우유밥, 우유커피, 우유인삼쥬스, 우유순두부, 우유두부, 우유죽, 우유계란말이, 계란찜, 우유된장국, 된장쌈장, 가정에서 만들어먹는 요구르트·요플레 등등 한국적요리에 쉽게 접근하도록 생각을 바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재장이건, 낙농가 교육장이건, 길거리이건, 축구 경기장이건, 학교이건, 분회가 결성돼 지역의 여성 동지들은 지역 낙농지도자님들과 함께 프라이어팬을 들고 소비자들에게 우리우유의 가치와 먹는 형태를 새



**우유소비행사는 공짜로 나눠주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알게 해주어 소비자님들께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홍보와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우유에 영양적 가치를 알리는 내용이 교과과정에 등재토록 교육부와 농림부는 연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롭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대부분 우유요리를 먹어 보신 분들은 우유가 좋은 것은 아는데 배가 아파 못 드셨는데 새롭게 먹는 방법을 배웠다고 관심 있게 배워 가셨고 맛이 좋다고 저희 여성분과 부스장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일부 음식으로 판매한 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재창출 됐습니다.

이제 우유소비행사는 공짜로 나눠주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알게 해주어 소비자님들께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홍보와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우유에 영양적 가치를 알리는 내용이 교과과정에 등재도록 교육부와 농림부는 연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인 유아들과 식품구매력이 제일 큰 주부들에게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체험 및 놀이문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화성 농업전문대학교에서 농림부와 마사회가 후원해 주시어 여성분과위원에선 '우유사랑대축제'라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참석대상 유치원을 섭외하고 반드시 자모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목장과 소그림을 그리게 하고, 행사장에서



는 단체로

놀이마당 및 체험마

당으로 송아지와 사진찍기, 이쁜 소보기, 젓소관련 그림 및 사진감상하고 여러가지 우유음식 맛보기와 우유에 관련된 게임 및 퀴즈로 우유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이해시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한마당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장기기획에 의한 우유소비촉진 행사가 전국적으로 다발로 일어나서 낙농업이 소비자들에게 가까운 놀이문화로 정착, 창출 됐으면 합니다.

작년에 여성분회가 결성된 지역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출로 잠재고객들과의 만남을 저희 생산자 낙농가들이 혼연일심으로 일궈낸 결과이고, 이 일을 기회로 내년에는 낙농관련 단체들이 이해 상관 없이 한마음으로 우유소비촉진에 열과 성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제 21세기 낙농산업은 국제화 개방화속에 낙농가들은 생산비를 낮추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으로 임하면서 소비촉진

에 가세 자조금을 더 많이 거출하고 정부 지원금을 합쳐 소비자 각 계층별로 딱 맞는 우유소비촉진을 해야만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인정에 끌려서 아니면 애국이나 동정심으로 우유를 먹게 하는게 아니라 국산 우유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바르게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귀한 돈을 주고 사서 드시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비촉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구가 어떠한 형태든지 조직되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앞선 기획과 판단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주체가 혼연일심으로 나서서한 우유홍보는 그 자체로도 진실되게 소비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목장에서 착유만하고 송아지 육성만 시키던 낙농가들이 마음을 합쳐 프라이팬을 들고 삼복무더위

에 부침개를 부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서툰 말씨이나 국산우유를 이해시키고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이웃들에게 전단지나 리후렛을 돌리면서 우유의 가치를 호소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낙농인이라는 절실함 때문이고 낙농업이 생계수단 이기에 더욱 마음을 파고들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유의 본질과 가치를 교육하는 기회부터 낙농가들이 자진해서 참석하며,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낙농의 전환기를 맞고있고 급속하게 낙농산업이 농업중에 꽃으로 자리 매김 했지만 아직 낙농업에 비전과 희망이 없다는 성급한 판단은 말고 한층 더 노력하면 안정적이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귀한 직업으로 스스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위상을 올려야 합니다.

더욱이 농가별로 특성이 있는 한국인 식성에 맞는 유제품을 자체개발하고 소비특새를 파고드는 소비촉진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현 유가공 처리법령을 바꾸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후원이 되어서 친환경의 깨끗한 목장 환경과 착유 위생시설도 농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낙농가가 되고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나 장차 실시될 어떠한 방법의 쿼터제나 낙농 제도도 장기적인 대책과 연구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가슴에 상처주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 역할분담을 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안정적인 낙농 산업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새해에는 바라고 꿈꾸어 봅니다. 낙농산업의 무궁한 발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신 여성분과 회원님들께 올해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여성분과 위가 내년에는 많은 지역에 결성되어 내실있는 목장경영을하는 전문 프로낙농인으로서의 탄생과 우유소비 촉진대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

(필자연락처 : 016-788-5868)

☺ 알 리 는 말 씀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실히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부